

지역 소식통

부안, 코로나 7번째 확진

부안군은 지난해 12월 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던 6일 타 지역을 방문한 A씨가 7번째 확진자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A씨의 거주지는 경기도 화성시로 근무지가 부안이며 지난 12월 23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화성에서 가족들과 지내다 부안으로 내려온 뒤 의심증상이 발현돼 지난 5일 선별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판정을 받았다.

군은 확진자 관련 거주지 및 방문장소에 대한 방역 소독 및 동선·접촉자 등에 대한 역학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군은 추가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관련 정보를 주민들에게 신속·정확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갈대숲 작은 도서관 개관

부안군 줄포면(구)줄포 문화의 집 2층을 리모델링 한 '줄포 갈대숲 작은도서관'이 1월 19일에 개관할 예정이다.

지역주민의 독서생활화와 지역 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2020년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작은도서관 조성)으로 선정되어, 177㎡에 사업비 1억4,000만 원(국비 9,800, 군비 4,200)으로 지난 12월말 리모델링을 완료하였다.

일반실, 아동실, 유아실, 모임실, 다목적실 등을 갖춘 갈대숲 작은도서관에는 신간도서 2,500여권을 비치했으며, 매년 300~400권의 도서가 추가로 비치된다. 또한 지역의 아동센터와 연계하여 어릴적 부터 독서습관을 길러 주고, 도서 대출·반납 뿐 아니라, 독서문화 프로그램, 독서 모임, 문해교실 등 알차고 다양하게 운영하는 등 지역민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유안숙 교육청소년과장은 "남녀노소 지역민 누구나 즐겨 이용할 수 있는 우리 동네 문화사랑방이라며 이곳 줄포 갈대숲 작은도서관에서 지역주민들이 책과 함께 평생교육의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도서관 이용 방법은 직원들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으면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역경제·환경 '두 마리 토끼'

이슈 분석 - 동우팜투테이블, 일반산단 입주계약 체결

"10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설계단계부터 엄격한 환경설비 구축 환경 피해는 없어"

고창군에 중견 향토기업인 주)동우팜투테이블이 들어온다.

일자리가 없어 다른 지역으로 아들이 딸들이 빠져나가는 현실에서 모처럼 만의 중견 기업유치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이 크다. 농군(農郡)인 고창에 역대 최대의 고용효과 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동우팜투테이블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와 일부에서 제기된 환경피해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봤다.

▲모두가 탐낸 알짜 기업 '주)동우팜투테이블' = 주)동우는 군산 서수면에 본사를 둔 국내 굴지의 가공류 가공회사다. 전복 대표 향토기업으로 740여명의 직원과 2000여대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코스닥에 상장까지 된 중견기업이다. 가공류 전문기업 하량이 30대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익산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주는 것도 좋은 사례다.

이처럼 알짜기업 동우를 입주시키기 위해 남원시, 순창군 등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펼쳤으나, 상수원 보호구역 권역별 수질오염 총량제에 막혀 유치가 실패했다.

▲10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중견기업인 동우는 법적으로 외국인 직접 고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직·간접적으로 1000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고창군 관내 농공단지 입주한 70여개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과 맞먹는 고창군 최대 고용규모다.

특히 근로자 임금, 불류비 등이 지역 상권에 풀리면서 연관산업(유통, 요식업 등) 경쟁력이 강화되고, 세수가 늘어나는 등 자연스럽게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설계부터 철저히" 악취·폐수 막는다=공장 운영에 따른 냄새와 방류수 관련 고창군은 '민관 공동검증 연구단'을 상시 운영해 설계단계부터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조시설을 밀폐하고 최첨단 악취저감 장비와 시설(악취 포집, 세정 등) 도입이 예정돼 있다. 공장주변에 악취와 먼지로부터 마을과 고수면 소재지 유입을 막는 차폐 숲(대형 가로수 식재)도 만들기로 했다. 특수제작한 분리형 컨테이너를 사용해 야간에만 운행하면서 악취·먼지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방류수 역시 1차 자체 처리시설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수질기준으로 정화한 뒤, 2차 완충 저류지에서 자연정화돼 하천으로 흘러가게 된다. 방류수 수질은 공공기관(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간 감독하게 된다.

특히 현재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는 갈수기 농업용수로도 사용될 만큼 작물생장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이밖에 '육계 사육농장과 가축 질병

이 늘겠다'는 내용 역시 검증되지 않는 소문에 불과하다.

고창군청 축산과 이동태 과장은 "이미 수년전부터 '고창군 가축사육 제한조례'가 제정돼 주거지역 1km, 도로·하천 100m이내에는 육계 농장 허가가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다"며 "조류인플루엔자(AI)의 발생원인도 야생철새 분변 등 사람간 전파보다 환경적 요인이 크기 때문에, 가금류 가공처리업 유치가 A발생을 증가시킨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방치가 아닌 현명한 이용"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진정한 가치=고창처럼 전 지역이 생물권보전지역인 전남 순천에는 산업단지내 화학제품, 콘크리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다수 존재한다. 세계 자연유산인 제주도에도 후대지 가공, 화장품 기업이 여러 곳 있다. 현재의 기술로도 얼마든지 환경을 지켜가면서 지역소멸을 막고 도시발전을 이끌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인 셈이다.

생물권보전지역인 고창의 생태환경을 보전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과제이나, 기업활동도 생활환경보전을 최우선 하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해 환경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군 상생경제과 정길환 과장은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인구감소로 힘겨워하는 지자체들은 생존을 위해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주민들의 순수한 생태환경보전과 생활환경 우려는 낮은 자세로 경청하여 최선의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고창=김석진 기자



정읍시는 신태인 공영터미널이 준공돼 지난 1일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정읍시, 신태인 공영터미널 준공 완료

총사업비 10억 원 투입... 주변 환경 정비, 냉·난방 시설 완비 등

정읍시는 신태인 공영터미널이 준공됨에 따라 터미널 이용객들에게 보다 나은 편의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9년 운영 사업자 부재로 폐쇄 위기에 놓인 신태인 터미널 현대화사업을 결정하고, 부지매입과 기존 건축물 철거 공사를 완료했다.

이후 2020년 6월 신속 공사에 착수해 최근 간판 등 부대시설 설치를 끝으로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1일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하게 됐다.

시는 터미널 이용객들과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을 수시로 확인하고 세심하게 살펴 공정별로 차질 없이 원활하게 진행 완료했다.

신태인 공영터미널은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기존 터미널 자리에 대지면적 1,883㎡, 건물 연면적 204.33㎡ 1

층 규모로 조성됐다. 신축된 터미널은 냉·난방 시설을 완비해 계절에 상관없이 승객이 편안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합실과 매표소, 사무실, 승무원 휴게소 등의 시설을 갖춰졌으며, 주변 환경 정비를 통해 이용자가 쾌적함을 느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신태인 공영터미널 시외버스 운행은 광주 6회, 전주 5회, 부안 3회로 일일 총 17회 버스가 운행된다.

또한, 시내버스도 공영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동안 7개월간 운영했던 임시 승강장은 철거됐다.

시 관계자는 "터미널 이용객과 시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 상권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주거환경 개선사업 조기 추진

주민, 귀농·귀촌자 대상

부안군은 2021년에도 주민들에게 행복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개량과 빈집정비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희망하는 주민 또는 이주를 원하는 귀농·귀촌자를 대상으로 해당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실태조사를 거쳐 2021년 2월중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2021년도에는 주택개량 50동에 대한 용자와 빈집정비 121동과 농어촌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 8동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저소득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을 11동 선정하여 다양한 계층에게 안정된 주거환경을 지원한

다. 주택개량사업 신청대상자는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와 무주택자, 귀농귀촌자로서 연면적 150㎡이하의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사업실적확인서 금액 범위 내에서 2억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용자금을 지원하며, 대출금은 연 2%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하는 두가지 조건이 있다.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취득일(건축물 사용승인일) 현재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사람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소득세를 지원하며, 저소득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을 11동 선정하여 다양한 계층에게 안정된 주거환경을 지원한

사업신청자는 세대주에서 배우자가 지 확대됐다.

또한 신속공사 진행 중 사업장의 담보가능 한도 내에서 선금과 중도금대출이 최대 4천만원까지 가능하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사용·거주하지 않는 농어촌주택과 비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규모와 지붕재료에 따라 철거 비용을 지원한다. 농어촌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은 저소득층 등에게 5년간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경우 빈집에 대하여 최대 2000만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장애인주택개조 사업은 저소득 등록장애인 생활과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출입로·경사로보수 등 주거용 편의 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야간보행자 안전 확보 '만전'

정읍시(시장 유진섭)가 야간에도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시는 2021년 예산 15억원을 확보해 가로(보안)등 설치 운영에 활용하며 범죄예방과 야간보행자 안전 확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야간 보행환경이 취약한 어두운 길에 LED 조명시설을 설치 또는 교체 정비해 범죄를 예방하고 여성 등 약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사업은 읍면동 지역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보수와 가로(보안)등 신설 및 노후 등기구 교체 정비, 정읍천변 가로등 정비(조도 개선, 120개소) 등이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보수 시에는

LED 램프를 사용해 현재 22.8%인 LED 고효율 램프 점유율을 31%까지 끌어올려 약 1억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읍면동 가로(보안)등 약 250개소를 신설하고, 노후 등기구 약 200개소를 교체 정비할 예정이다.

특히, 정읍천변 일원의 주요 도로 중 상대적으로 조도가 낮은 구간의 가로등 약 120개소를 교체 정비해 안전한 도로 통행 환경을 조성하고, 천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유진섭 시장은 "에너지 절감이 좋은 LED등 관련 사업을 읍면동의 주요 노선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